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송도원청년야외극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먼저 야영소구내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1993년 3월 30일 어버이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야영각과 국제친소년회관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야영소를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야영소의 운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를 알아보고 지금은 여름철에만 운영하고있는데

앞으로는 겨울철에도 운영하여 아이들이 새로 건설되는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도 탈수 있게 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물놀이장과 보트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보장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알아보시고 자신께서 현대적인 물놀이시설비를 보내주겠으니 마음먹고 잘 꾸려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운동장을 돌아보시면서 룡상주로를 꾸려주고 축구장바닥에 인공잔디를 깔아주며 배구와 통구를 비롯한 체육운동을 할수 있는 체육시설을 새롭게 갖추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수욕장을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해수욕을 할수 있게 탈의실과 조약대, 현대적인 샤워시설비를 갖추어주며 해수욕장에 모래가

쌓이지 않게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다음해 태양절까지 야영소를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송도원청년야외극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송도원청년야외극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송도원청년야외극장의 리용정형을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양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자주 조직하여 극장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량만과 회일로 언제나 흥성거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송도원청년야외극장에서 늘 노래와 춤이 펼쳐지고 격동적인 선전선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그레야 우리 당의 군중문화예술활동방침이 은을 내게 된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내어 이곳에서 진행되는 예술공연을 원산시민들과 함께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원도당위원

회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야외극장의 관리운영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극장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버이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이 깃들어있는 송도원청년야외극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저저마다 찾아오는 장소로, 품치수려한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고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멋쟁이극장으로 더 잘 꾸려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날 송도원청년야외극장의 종업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군부대관하 여러 단위들과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마식령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 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다가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 이 공장을 마지막으로 찾아오신 날이 2011년 11월 13일이었다고, 새벽에 전화를 걸어주시며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음성을 잊을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종합시험실, 전자열람실, 과학기술보급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기초식품직장, 즉석쌀밥직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상화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절임생산 공정들도 돌아보시면서 무우, 오이, 고추, 마늘을 비롯한 먹음직스러운 여러가지 장절임들을 많이 생산하여 군인들에게 공급해주고있는데 그 령이 대단히 좋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식료가공품들을 보여주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날 공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그를 위

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39군부대관하 동해후방기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후방기지의 지휘관들과 종업원들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2011년 초 겨울부터 정히 보관하고있는 감들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안고 후방기지 종업원들이 창작한 시도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목욕탕, 식사실, 휴게실, 뽕동창고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후방기지의 경영활동과 기업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후방기지는 다른 수산기지들에 비해 조건과 환경이 더 나은것은 없지만 물고기잡이정도가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정이 드는 기업소, 맵시나는 기업소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후방기지의 고기배수리기도 돌아보시였다.

200마력고기배에 장비한 수평수직교성능어군탐색기의 기술적특성과 고기배의 페럴리용정형을 알아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고기배가 고장난 다음 수리

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예비기관을 항시적으로 차고있다가 짧은 시간안에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바다에 띄우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반가공실에서 함께 일하고있는 부부선반공을 만나시고 보람찬 로동에 구슬땀을 바치고있는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39군부대관하 동해후방기지는 전군의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기지가 이룩한 성과를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39군부대관하 동해후방기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 종업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잘 복무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직속구분대에 쌓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마식령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방에서 마식령스키장건설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건설자들이 말도 넘기 힘들어 쉬어가는 령이라고 하여 마식령이라고 불리우는 산발에 수습만m²의 면적에 총용장길이 4~11만m이고 40~120m의 폭을 가진 초급스키주로, 중급스키주로, 고급스키주로들을 닦아놓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스키장문주와 호텔, 스키기자재보관고, 직승기착국장, 삭도설치를 비롯한 대상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알아보신 다음 해발높이 1,360m나 되는 스키장정점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생태환경이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있고 울창한 수림이 뒤덮여있는 스키장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경치가 좋지만 설경속에 잠긴 스키장은 더욱 멋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중나온 군부대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고기배에 오르시였다.

조타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군탐지기기를 보시며 사용해보니 성능이 어떠하건가에 대해 물어주시였다.

기름냄새가 짙게 풍기는 기관실안까지 들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관실은 어떻게 꾸러졌으며 작업시에 연료소비량은 얼마인가, 힘은 얼마나 쓸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선실과 중간선실들도 돌아보시며 선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꾸려주라고 이르시였고

고기배의 페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는 어느 한 수산기지의 경험도 들려주시며 날바다에서 찬물에 손을 적시는 어로공들이 더운 곳에서 휴식할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척량 물고기잡이계획에 대해 물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매 고기배당 해마다 1,000t은 잡아야 한다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물고기잡이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공급해주라고 말씀하시며 계획을 수행하게 되면 꼭 최고사령관에게 편지를 쓰라고, 기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기배들의 이름을 달아달라고 청하는 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생각해잡겨계시다가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가을의 상징인 《단풍》이라고 달라고 하시면서 고기배들의 명칭을 《단풍1》호, 《단풍2》호, 《단풍3》호, 《단풍4》호로 달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973년 8월 25일 이곳 수산사업소에 찾아오시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시비와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산사업소의 어구보관고와 뽕동실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들에게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29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291군부대를 시찰하시였고 부대의 싸움준비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부대의 전투임무와 훈련실태, 전투기술기재의 장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군부대관하 편대들을 시찰하시였다.

군부대관하 6편대의 기재보관고로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다가기슭에 무질서하게 정박해있는 여

러척의 함정을 보시고 보관고에 왜 넣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싸움은 상대방에 대한 정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항시적으로 우리의 군사대상물을 탐지하려고 발악하고있는데 맞게 군부대가 장비하고있는 전투기술기재들이 로출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싸움준비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신다고 강조하시였다.

지휘부와 편대들의 배치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들이 생활하는 병영을 적합한 곳에 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싸움의 전

지에서 모든것을 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웃단위 지휘관들은 아래에 내려오게 되면 모든것을 싸움준비의 견지에서 보고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보관고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함정들의 보관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곳 군부대는 적들과의 해상전투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것만큼 함정들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군부대의 함선수리소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함정들에 대한 수리를 어떻게 하고있는가고 물어주시면서 지휘관들에게 있어서 싸움준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는 오늘 못하면 래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인민력투부를 비롯한 웃단위에서 부대들의 싸움준비에서 결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때에 알아보고 무조건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대에 오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군인들과 인민들이 물목이 터진듯 달려나오며

격정에 겨워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가까이에서 뵈고싶어 엎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나 달려오며 눈물을 흘리는 군인들과 인민들을 보신 원수님께서는 옮기시던 걸음을 거듭 멈추시고 손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찰을 마치고 귀로에 오르시기에 앞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후 대 들 에 대 한 또 거 운 사 랑

공화국에서 6.6월은 학생소년들의 명절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하신 그때로부터 어느덧 1년이 되어오고있다.

백두산기슭의 정일봉중학교로부터 조국의 최전방인 초도의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달려온 2만여명의 나이런 소년단체 대표들이 기쁨과 행복에 겨워 그이의 축하연설을 구절구절 소중히 새겨안은 지난해 6월명절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축하연설에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앞날의 조선은 소년단원들의 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패일이 비껴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이 주인이 될 앞날의 강성조선은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 모두가 화목하며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일것이라고, 이 위대한 나라를 다름아닌 소년단원동무들이 떠맡고 더 훌륭하게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그러자면 공부를 잘하여 세상을 놀래우는 앞날의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들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사랑스러운 우리 소년단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은 나라 강산에 울려 퍼진 그이의 미래사랑이 자자구구 맥박치는 축하연설에서 사람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또 한반도의 자레로온 어버이를 모신 크나큰 궁지로 하여 가슴설레이었다.

일찍이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셨고 북조선청년인민위원회 첫 회의 의정으로 아이들이 쓰는 연필문제를 제기하신 어버이수령님. 세상에서 처음으로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1 (2012)년 6월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할수 있도록 전방적11년제의 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신 그이의 후대교육의 혜택아래 이 나라 어린이들은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 지적체를 겸비한 앞날의 주인공으로 자라게 되었다.

후대중시를 국사의 첫차리에 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으며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시며 후대들을 위한 국가적시책에 언제나 깊은 관심과 로

고를 기울이시었다. 나라의 정세가 전쟁정세로 치닫고있는 엄혹한 속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공우유차가 달리고 또 달린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의 후대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숭고했건가를 잘 알수 있는것이다.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받들어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민족의 앞날

을 때때고나갈 역군으로 키우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고 의지이다.

숭고한 후대사랑의 력사가 새로운 주제 100년에도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게 될것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시려 그이께서는 지난해 성대한 6월의 축전장을 마련 해주셨던것이다.

대회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었고 대표들과 함께 경축음악회도 보시고 기념사진도 찍으시며 새세대들의 앞날을 축복하신 원수님이시다.

은 나라에 어린이들의 행복에 겨운

미래를 사랑하라!
이것은 조국의 미래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현지지도의 길을 가시다가도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으실 때면 온갖 피로도 다 잊으시고 햇빛같은 미소를 환하게 지으시던 장군님이시다.

주제89(2000)년 8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성강림산사업소의 마을을 찾으시었다.

한옥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립산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이 괜찮은데 대해 만족해하신 그이께서는 저기그 어디인가를 점도록 바라보시었다.

마을에 꾸러진 유희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거듭 좋구만, 립산마을아이들이 좋아하겠소라고 은꼴안이 울리게 말씀하시었다.

이윽하여 이런 산팔마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며 즐길수 있는 훌륭한 유희장을 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오늘은 기쁜 날들중의 하루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아이들에게 정답게 손을 흔들어 주시었다.

자신의 로고는 심중에 묻어두시고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그의 인자한 모습은 지금도 그 고장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고 한다.

몇해전 9월 어느날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건설된 수영관을 돌아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설치한 조약대를 보시고 수영장이 아주 멋있다고, 황홀하다고, 수영장에 조약대를 설치해놓으니 정말 멋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조약대에서 연방 뛰어내리

는 학생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훌륭한 수영관을 꾸려주고 수영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대학생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이었고 그 길에 가꾸어지고 꽃피던 조국의 밝은 미래였다.

로씨야신문 《올라지보 스토크》에는 이런 글이 실리었다.

조선에서는 김정일령도자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조선에서 령도자와 어린이들사이의 관계를 함축한 말이라고 할수 있다.

김일성주석의 서거로 전체 조선인민이 피눈물의 바다에 잠겨있을 때 김정일령도자께서 새로 출생한 세쌍둥이를 위하여 직승기를 띄우게 하신 사실은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군사적위협과 경제봉쇄, 류레없는 자언제해로 하여 조선인민이 허리미를 줄라매지 않으면 안되었던 1990년대 후반기

에도 김정일령도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그이께서 계시어 미래를 사랑하라는 후대관을 지니시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의 후대사랑의 력사는 오늘날도 영원히 흐르고있으며 조국의 미래는 더 밝고 창창한 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후 대 관 , 미 래 관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며 민족의 미래라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후대사랑, 후대중시의 뜻

건국의 첫 기슭에서

해방된 이듬해인 주제35(1946)년 5월 어느날이었다. 새 민주조선건설의 첫 기슭에서 벌써 강성조선의 앞날을 생각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그날 한자두자 온 나라 아이들에게 보내는 《사랑하는 새 조선 어린이들에게》라는 글을 쓰셨다.

우리 나라는 해방되었으며 일제는 망쳤다고, 우리의 강산, 학교도 다 우리 나라, 우리 인민의것으로 되었다고 하신 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쓰시었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보배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후대들을 생각하라

지난 주제97(2008)년 7월 초였다. 자강땅을 찾으면서 강계시안의 식료공장, 퍼복공장을 비롯한 여러 부문을 현지도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자강도 인민들은 강계정진의 창조자, 새시대의 용감한 개척

우리 어린이들의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앞날을 걸머질 우리 어린이들은 새 나라의 새 어린이로서 힘껏 배우고 일하고 즐겁게 놀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것입니다. 사랑하는 새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 새 나라의 씩씩한 새 어린이가 됩시다.

수령님의 후대사랑의 손길아래 해방된 조국의 새세대들이 앞날을 떠메는 주인공로 자라 년대와 년대를 넘어, 새기와 새기를 이어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며 부강조국을 훌륭히 떠맡든것이다.

자들이라고 치하하시었다. 존엄한 고난의 행군을 앞장에서 강행군과 자강도 사람들의 불굴의 정진과 기상을 높이 평가하시는 그이의 심중에는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에 대한 생각이 밀물처럼 차오르고있었다.

이고 보살핌이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변함없는 후대관이다.

그이께서는 말씀하셨다. 앞으로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한다고 하여도 어린이들에게는 절대로 고난의 행군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어린이영양식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고 혁명의 계승자들이다.

강성조선의 기둥감이 되라

지난해 6월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가 전례없는 규모에서 성대히 진행됐다. 그날 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조국의 북변 백두산기슭으로부터 남단의 초도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에서 온 소년단원들을 축하하시던 그이께서는 공화국에 있어서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

어린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나라와 민족, 혁명의 진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므로 어린이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보장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존엄한 시련도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면 능히 이겨낼수 있다는 난관극복의 힘을 주시는 고귀한 가르치심이었다.

의 전부라고 하셨다. 앞날의 조선은 소년단원들의것이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지적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동군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6월의 그날에 하신 원수님의 축하연설은 자자구구 이 나라 모든 학생소년들이 나라의 역군으로 성장하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교과서, 거울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전국의 소년단대표들을 맞이할 준비로 흥성은 평양

은 나라의 축복속에 조선 소년단 제7차대회가 열리게 된 평양에서 전국의 소년단 대표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에 오는 소년단대표들이 뜻깊은 나날을 보낼수 있게 수도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인민봉사부에서 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현 대적으로 꾸러진 플라민유원지와 룡라공예관에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다.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소년단대표들이 유원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수 있게 유희시설들의 정비에 힘을 넣는 한편 봉사준비를 잘하고

있다. 공동어판에서는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펼쳐는 공동어들의 갖가지 재주를 통하여 바다동물들에 대한 상식을 보다 생동하게 가지며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게 관광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개선청년공원유희장, 인민외빈상장과 로라스케이트장도 앞날의 선군조선을 떠메고나갈 소년단대표들을 맞이할 준비로 흥성이고있다.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과 교육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전변된 중앙동물원에서도 준비사업을 특색있게 하고있다. 환영영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것과 함께 로정안내와 동물들에 대한 소개를 동시에 맞

게 하며 모두가 동물재주를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안내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국립교예단에서 행복동이들을 위한 명랑한 교예무대를 마련해놓았다. 출연자들은 국제교예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날오자 더 높이》, 《졸중심》 등 교예종목들의 편성과 형상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원통골리기》, 《인형놀이》, 《영리레주》, 《염소와 원숭이》와 같이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교예작품창조에 힘을 기울이고있다. 인민들을 위한봉사기지 유희관과 청류관 등에서도 준비사업이 한창이다. 유명한 평양평민과 료리들

의 맛을 더 돌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시내 러관들에서도 소년단 대표들을 위해 최대의 성의를 다하고있다. 러관 종업원들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대표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러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위한 대표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러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위한 대표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러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위한 대표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 《미래를 사랑하라!》를 관람하는 소년단대표들

유년시절의 감동깊은 추억은 일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 귀중한것이다. 최근 천하절승 묘향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시묘향산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의 나날을 보내던 아이들이 모두가 꿈만같은 행복의 일기를 남기게 되었다. 5월 19일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야영소를 찾으셨던것이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라는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 높이 울리는 야영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자욱이 새겨진것이다.

그날 칙실, 등산식보급실, 음악실, 회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야영생활의 생활을 일일이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즐겨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이 야영소라는 노래도 있지 않가, 나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을 생생히 느끼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할 일이 산더미같지만 야영소를 잘 건설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

시었다. 그러시면서 이곳만이 아니라 전국의 야영소들과 소년궁전, 소년회관들도 훌륭히 개건하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었다. 후대들을 사랑하는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성주석께서는 새세대들의 눈동자에 미래가 있다고,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국가수반의 직책

을 맡아주시었다. 후대들을 사랑하는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성주석께서는 새세대들의 눈동자에 미래가 있다고,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국가수반의 직책

을 맡아주시었다. 후대들을 사랑하는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성주석께서는 새세대들의 눈동자에 미래가 있다고,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국가수반의 직책을 맡아주시었다.

존엄한 시련을 겪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자신께서는 힘준한 전진길을 걸으시면서 아이들앞에는 언제나 화창한 야영간판을 펼쳐주시었다.

하기에 아이들은 장군님앞에는 험한 산고지, 아이들앞에는 해돋는 바다라는 노래를 입말처럼 부르며 야영길에 올랐고 사랑의 왕자로 불리우는 풍우유차는 어김없이 아이들을 찾아 달리었던

것이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으신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6월 조국의 최북단 두메산골로부터 분계연선마을,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의 2만여명에 달하는 소년단대표들을 평양에 부르시어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들 성대히 열도록 하시었다. 우리가 걸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있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며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여서는 의사들이를 하는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팔을 내미시며 한변 진찰해보라고 이르시고는 응석을 부리는 아이들의 불을 다정히 어루만져주시던분. 한없이 자레로운 그이의 품속에는 평양의 현대적인 새 아파트에 입사한 가정의 어린이로부터 외진 섬방어마을의 첫 돌생일을 맞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새세대들 모두가 다 안겨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는것이다.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고 떠나시는 원수님을 얻어질듯, 넘어질듯 따라서며 노래 《불타는 소년》, 《장군님과 아이들》을 부르며 그이의 안영을 바라는 묘향산등산야영생활의 밝고 명랑한 얼굴에는 위대한 사랑의 손길아래 무궁번영할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조국강산에 울리는 후대사랑의 노래가 시사해주는 민족의 밝은 미래! 고귀한 사랑을 뿌리를 두고 움터나는 민족의 꽃망울들은 무성하게 자라라고자라 앞날 열매로 조국을 받들고 무궁토록 빛내여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민족의 밝은 미래

우에 아이들을 놓으시고 미래를 위해 한평생을 강구리 바치시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도 많으셨지만 북조선청년인민위원회 제1차회의의 의정으로 아이들이 즐겨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이 야영소라는 노래도 있지 않가, 나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을 생생히 느끼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할 일이 산더미같지만 야영소를 잘 건설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

것이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으신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6월 조국의 최북단 두메산골로부터 분계연선마을,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의 2만여명에 달하는 소년단대표들을 평양에 부르시어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들 성대히 열도록 하시었다. 우리가 걸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있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며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여서는 의사들이를 하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현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되어온다. 집권 5년기간에 비하면 100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시작이 절반》이라고 지난 몇달 사이에 벌어진 일만 가지고서도 현 남조선 《정부》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돌아다보면 동족대결의 낮과 밤을 보낸 리명박집권 5년기간을 악몽속에서 보낸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는 새 《정부》를 바라보는 반부대결개도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길, 북남공동선언리행의 길에 들어서는 길을 바꿨다. 현 남조선당국자도 《대통령선거》운동기군 《대화》니, 《6.15공동선언리행》이니 하며 일정한 정책변화를 공약하였었다.

그렇게 시작은 되었지만 오늘에 와서 현 남조선 《정부》를 바라보는 겨레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북정책》에서 실지로 달라진것은 없고 모든것이 리명박 《정권》 그대로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더하다는 혹평도 나오고있다. 북남관계가 평화롭게 흘러가고 통일로 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6.15북남공동선언리행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것은 6.15가 북남대결의 오랜 력사에 중지부를 찍은 화해와 협력의 선언, 평화와 통일지향의 선언이기때문이다.

그 선언의 골자는 우리 민족끼리이고 서로의 사상과 제도, 존엄과 권리에 대한 인정이고 존중이다. 그러나 현 남조선당국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우리 민족끼리에 배치되게 의제와 야합하여 동족에 대한 적대와 압살의 길을 택하였었다.

세계가 다 하는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의 행사인 인공위성발사를 걸고들며 유엔 《제재》소동의 앞장에서 분별을 잃고 날치였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실재적대응조치로 지하행시종이고 공화국의 존엄과 발전의 권리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다. 세계가 다 하는 위성발사를 북에서 안된다면 것이야말로 궤변의 극치이고 남북대결의 절정이라 해야 할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도를 넘는 적대행위에 공화국이 분노하고 자위를 위한 실재적대응조치로 지하행시종을 단행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핵은 미국도 가지고있고 그 핵무기로 공화국을 섬기게 이어가며 위협하고있다. 미국의 핵이 인류를 해치는 침략의 핵이라면 공화국이 틀어잡은 핵무기는 자위의 핵이고 정의의 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핵은 숭상하고 동족의 핵은 범죄시하면서 유엔무대에서 부당평화와 통일지향의 선언이기때문이다.

데 혈안이 되었다. 《핵포기》를 사실상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지어 병진로선을 《도박》으로 묘사하며 반공화국핵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이것이 리명박의 《비핵, 개방, 3 000》과 무엇이 다른가고 안팎의 비난이 터져나온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의제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위협천만만 전제연습들도 련이어 벌여놓아 《정권》 첫시작부터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말 그대로 북침전쟁무대로 만들었다.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대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다. 세계가 다 하는 위성발사를 북에서 안된다면 것이야말로 궤변의 극치이고 남북대결의 절정이라 해야 할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도를 넘는 적대행위에 공화국이 분노하고 자위를 위한 실재적대응조치로 지하행시종을 단행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핵은 미국도 가지고있고 그 핵무기로 공화국을 섬기게 이어가며 위협하고있다. 미국의 핵이 인류를 해치는 침략의 핵이라면 공화국이 틀어잡은 핵무기는 자위의 핵이고 정의의 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핵은 숭상하고 동족의 핵은 범죄시하면서 유엔무대에서 부당평화

그들이다. 결국 이 모든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소동으로 하여 리명박 《정권》 5년동안에 망친 북남관계는 불과 100일도 안돼 더욱 처참하게 짓겨져지게 되었다.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처하고 전쟁이 실지로 터질수 있는 최대의 위험이 조성되게 되었다.

지나온 근 100일간의 나날을 통하여 명백히 알수 있는것처럼 동족대결은 북남관계파괴산이고 전쟁으로의 절주이다.

그 잘못된 길을 집권 5년간 계속 이어가겠는가 아니면 바로잡아가겠는가 하는 운명의 기로에 지금 남조선당국이 서있다고 할수 있다.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에서 불행한 5년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있다. 북남관계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더 멀러 후퇴하느냐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의 신뢰와 정진을 바란다면 허황한 《북의 핵제기》와 《북변방》에 기초한 반부대결정책을 버려야 하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외세공조가 아니라 동족과 손잡고 나아가는 진정한 통일에국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과》인가, 《죄악》인가

남조선의 집권 세력이 《새 (정부) 출범이후》이룬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국정성과발표회》에 한창이다. 얼마전 당국자가 《국민행복기금》 본점을 방문한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찾고 그 무슨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하며 부산을 피운것도 이른바 《성과》를 화려하게 위해서이다.

하지만 민심의 눈빛은 싸늘하다. 현 《정부》의 100일을 뒤돌아보니 결국 현란한 《대선》공약이 꼭정이공약으로 바뀐 100일로 특징지어진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평가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한가지만을 놓고보자. 지난해 《대통령선거》때 현 집권자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유혹적인 간판을 내었고 《선거》유세장들을 다니며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철석같은 약속을 하였었다.

그런데 오히려 인민들의 고통과 힘겨운 삶은 더해만 갔다. 얼마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추진하려는 청와대와 군부세력의 무지막정한 폭거로 강정마을주민들이 심한 정신육체적고통을 겪었다.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마을주민들의 항의시위에 당국은 경찰부력까지 동원하여 진압하는것으로서 대답하였다. 현 집권세력의 무모한 동족대결행동으로 지난 《정부》때에도 유지되어오던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폐쇄직전에 이르러 관련기업들이 커다란 경제손실을 입고 한지에 나앉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가하면 얼마전 부터는 경상남도 밀양 송전탑공사제기문제 등을 둘러싸고 인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더욱 커만 가고있다.

지난 5월 21일에도 밀양 북부면 평방마을에서는 또 다시 철탑공사를 반대하는 항위시위가 벌어졌다. 이곳 주민들이 자기들의 명줄인 파수원과는 한가운데 송전탑을 세우려는 《정부》와 공사측을 반대해 항의를 벌였다. 그러나 주민은 자살까지 시도하였다. 《경찰을 풀고, 사람을 개처럼 짓밟는것이 (정부)인가?》, 《새 (정부)는 (억울한) 사람없는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지 않았는가?》하고 억울함과 절절함을 하소하던 시

위자들은 그래도 공사를 거두고 강행하려면 《여기에 우리들 묻고 하라.》며 결사적인 항의를 벌였다.

현재 주민들의 립장은 《정부》측에서 공사를 강행할 명분이 더이상 없다는 것, 경찰부력을 철회하라는 것,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할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라는것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대신 공작현장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경남지방경찰청 기동대원 500여명과 전투경찰까지 투입하였다. 하여 현장에서 이에 저항한 10여명의 주민들이 다치거나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면 주민 탐사제기문제 등을 둘러싸고 인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더욱 커만 가고있다.

지난 5월 21일에도 밀양 북부면 평방마을에서는 또 다시 철탑공사를 반대하는 항위시위가 벌어졌다. 이곳 주민들이 자기들의 명줄인 파수원과는 한가운데 송전탑을 세우려는 《정부》와 공사측을 반대해 항의를 벌였다. 그러나 주민은 자살까지 시도하였다. 《경찰을 풀고, 사람을 개처럼 짓밟는것이 (정부)인가?》, 《새 (정부)는 (억울한) 사람없는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지 않았는가?》하고 억울함과 절절함을 하소하던 시

지금 남조선의 현 《정권》과 보수세력이 개성공업지구문제를 해결하고 6.15행사를 공동개최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두고 《남남갈등조장》이라는 케케묵은 대결악설을 내뿜고있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느니, 《정치적이기만 담겨있다.》느니 하고 원색끼를 꼬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것》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내지른다.

《남남갈등》설, 귀가 아프도록 지껄어 들어온것이지서 하등의 논할 가치도 없다.

하지만 남조선의 현 《정권》이 북남관계의 파국상을 지속하고 긴장상태를 더욱 조장하려고 내뿜는 대결요설이기에 말하지 않을수 없다.

원래 《남남갈등》이란 말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이 빚어놓은 통치체제와 반인민적정책, 불합리한 사회적구조에 의해 산생된 모순과 대립을 표현하는것이였다.

진보와 보수의 리념적갈등, 동서간의 지역적갈등, 사회적광화화에 의한 계층별갈등 등이 대표적례로 된다.

이러한 갈등은 정치권내부에서, 《정부》와 인민들사이에서, 대기업과 서민사이의 반목과 질서를 중대시키고 사람호상간 지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있다.

리명박이 집권시기 《밖에 서 오는 위기보다 더 위험한것은 바로 남남갈등, 즉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며 《이것도 리념과 지역과 계층간의 갈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있는것이 현실》이라고 한탄할 정도였다.

이처럼 《남남갈등》은 남조선내부에서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정책이 초래한 사회적갈등이다.

그러나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내부문제에 생겨난 《남남갈등》의 본질을 왜곡

시켜 그것을 저들의 악정을 은폐하고 인민들에 대한 파썸탄압을 강화하며 북남관계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요설로 내뿜어왔다.

동족을 걸고 퍼뜨리는 《남남갈등조장》설은 어제오늘 비로소 생긴것이 아니다.

이미전부터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사문화하고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남남갈등조장》설을 떠들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 라당》 내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나 10.4선언발표에 《북남수뇌회담자체가 남남갈등을 유발했다는게 계획적인》이라느니 하는 등의 악담들이 나왔었다.

2008년에 발족한 리명박 《정권》도 그 무슨 《국민적합의》를 운운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복하였

동조장》설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저들의 친미사대와 파쇼행위를 합리화하고 동족대결을 극단으로 몰아가기 위해 꾸민낸 모략설이다.

현 남조선당국이 이번에도 6.15공동행사를 공동개최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두고 《남남갈등조장》을 위한것이라고 떠들고있는것도 지난 시기 판에 박은 대결모략설의 재반으로서 민족의 통일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며 북남관계를 계속 극단한 대결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책동의 산물이다.

공 심은데서는 공이 나오기 마련이며 씌운 물에서 장미가 피어날리 만무하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자숙해야 할것이다.

《남남갈등조장》이니 뭐니 하는 대결적인 모략설을 걸어치우고 동족에 대한 자세와 관점부터 근본적으로 바로가져야 한다.

최광혁

《성과》인가, 《죄악》인가

본사기자 김련옥

지난해 9월 당시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민심과 여론의 초점으로 된 《유신》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여기에서 그는 《5.16쿠테타》와 《유신》, 인민혁명을 정당화하며 불법적인것이며 그로 하여 《상처입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국민행복》이니, 《국민대통합》이니 하며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무진 애를 썼다.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어 리 석 은

과 략탈이 그칠새없이 일어 나고 지어는 나어린 소녀에게까지 성폭행을 가하는 인권유린행위가 꼬리를 물고 있다.

미국이 발표한 성폭력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미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건수는 2만 6000여건으로 2년전에 비해 35%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군은 이에 대한 법적처벌은 커녕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통해 인민들의 헬체로 마련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치와 향락만을 누리고 있다.

어찌 이뿐인가. 《유신》독재부활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현 보수당국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단체들과 애국적인 인사들을 무작

고 체면도 없다. 남조선의 인권실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는 1000여만명에 달하는 빈곤층들이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있다.

세계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있는것은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전락한 남조선의 비참한 인권실태의 측도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시기 국제인권기구까지도 이러한 남조선사회의 비참한 인권실상을 평가하며 《세계적인 인권후진국》으로 략인했겠는가.

한편 남조선강점 미군에 의해 가는 곳마다에서 살인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김정혁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리광성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김철호

본사기자 김철호

본사기자 김철호

본사기자 김철호

본사기자 김철호



정보원의 반값등록금 여론조사행위를 규탄하는 남조선대학생들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유신》 독재시기의 죄악에 대해 《사과》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속에 품은 독기를 감추고 민심을 회유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의 반공화국제재와 의제와 야합한 북침전쟁행동을 규탄배격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해 《북을 감한다.》느니, 《종북본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국제탁구련맹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혁봉, 김정선수들 귀국, 평양시민들 뜨겁게 환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안고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5월 30일 귀국하였다.

비행기가 도착하자 군중들은 세계탁구의 강자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가슴마다 금메달을 뽐내며 승강대에 나선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우승컵을 높이 추켜들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최태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리영수 당중앙위원회 부장, 리종무체육상, 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과

어머이자장군님의 태양상 앞에 이른 그들은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고 체육인들을 사랑의 환풍에 안아 승리의 영예를 떨치도록 이끌어 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삼가 인사로 드렸다.

체육인들이 승리의 개가높이 돌아온 그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꿈결에도 그림던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며 선수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꽃다발을 흔들며 《장하다 김혁봉》, 《장하다 김정》 등을

웨치는 군중의 환호소리가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무한한 기쁨과 감격에 휩싸인 선수들은 환영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며 차에 올라 시내로 향하였다.

런뭇동임구로부러 뚝뚝거리, 개신문거리, 창전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는 선수들을 기다리는 각계층 시민들로 차넘쳐었다.

영예의 우승자들을 태운 차행렬이 런뭇동임구에 들어섰다.

군중들속에서 《축하》, 《환영》의 환호소리가 터져나왔다.

선군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과시한 선수들을 환영하는 조선인민내무군구악단의 주악이 거리로 뒤흔들었다.

서성구역안의 근로자들이 달려나가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경기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장하다!》, 《축하합니다.》라는 목소리들이 연방 터져나오는 속에 탁구강자들은 삼시에 군중들의 꽃물결속에 파묻혔다.

군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일념으로 세계적인 강자들과 싸워이긴 선수들을 열렬히 축하해주며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다.

군중들은 어디 한만 안아보자,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흥분에 젖어 저저마다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김정선수가 정말 대견하다고, 김혁봉선수는 얼마나 의젓한가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와산동 주민들을 비

롯하여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중들의 얼굴마다에 우리 선수들에 대한 자랑이 함뿍 어려있었다.

10여년을 국가팀 감독으로 사임하면서 조국을 빛내이는 밑뿌리가 된 감독에게 보내는 축하도 모두의 가슴을 후답게 하였다.

세계적인 강자들과 대결하는 자기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오늘은 이렇듯 뜨겁게 맞이해주며 영광의 절정에 세워준 어머니조국의 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이 너무나 고마와 선수들과 감독은 눈물을 머금으며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었다.

차행렬이 장산거리를 지나 영생이 있는 룡흥거리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선수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바라보며 대원수님들께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마음속으로 삼가 아뢰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환영연도를 누비며 차행렬은 개신문거리에 이르렀다.

꽃다발들을 흔들며 환호성을 울리는 시내 근로자들, 아바트창가에서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 주민들...

금메달로 주체조선의 영예를 빛내일것이 대견하여 너도나도 연도에 떨쳐나와 환영의 인사를 보내는 군중들을 보며 선수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개신문을 지나 철성문거리의 연도에 늘어선 군중들도 환영의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우리 선수들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흥분을 금치 못하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던 모란봉구역의

근로자들과 체육인들이 선수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차행렬이 천리마동상앞 연도에 이르자 환영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영의 열파가 새차에 굽이치는 속에 차행렬이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창조물로 일떠선 창전거리로 들어섰다.

연도에 달려나온 중구역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탁구강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으로 선수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었다.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오늘의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의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려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선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선수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올리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삼가 드렸다.

김혁봉, 김정선수들에 대한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체육강국,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모든 탁구종목에서 세계패권을 쥐겠다

* 조선탁구협회 부서기장 한춘길과 나누는 이야기 *

기자: 지금 온 나라가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1등 연패에 대해 기뻐하고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찾아왔다.

한춘길: 5월 18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하였다는 소식이 실린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탁구협회로는 매일 축하편지와 전화가 오고 있다.

내가 사는 아바트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끔 찾아와서 조국의 영예를 반박해 떨치는 데서 이번이 탁구가 제일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칭찬해주는데 마치도 내가 금메달을 뽐낸 것 같았다.

어느 한 녀인은 올해 6살난 자기 아이에게 무엇을 시킬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있었는데 세계탁구강자가 된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6살때부터 탁구를 시작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식에게 탁구를 배워줄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여하튼 전사회적으로 탁구에 호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에

박영순선수가 두차례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함으로써 온 나라에 탁구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의 성과도 그 만 못지 않은 탁구바람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우리 나라가 혼성복식경기에서 세계패권을 쥘데 대해 세계가 놀라고있다. 이전에 그들의 경기성적은 어떠한 것인가.

한춘길: 어느 체육종목이나 올림픽이든 세계선수권대회든 경기시작전에 우승후보팀에 대해 예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고있다.

영국의 인터넷홈페이지가 《바리에서 진행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결승경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들이 남조선선수들을 대승하고 역사적인 우승을 함으로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결승에 대한 중국의 독점을 끝장냈다.》라고 쓴 글에서 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경기 결과는 탁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어엿었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신량망도 《결승경기후 기자회견장소는 50명정도의 기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것으로 하여 들끓었다. 이것만 보아도 조선선수들이 출전한 결승경기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냈는가를 잘 알수 있다.》라고 썼다.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오래전부터 혼성복식조를 못하고 탁구경기에 참가해왔다. 전적을 보면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두차례나 메달을 따냈고 2010년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단체경기과 여자단체경기에서 우리 나라가 순위권에 드는데 이 두 선수들이 크게 기여하였다.

김혁봉선수는 2011년에 진행된 국제탁구경기 남자복식경기에서 미국과 로씨야선수들을 이기고 1등을 하는데서 주력을 담당하였다.

우리 나라와 아시아에서 우수한 선수로 꼽히는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세계패권을 쥐었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기자: 미더운 우리의 남녀 탁구선수들이 경기에서 1등한 비결은?

한춘길: 우리 선수들은 우승한 소감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오늘의 이 승리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우리 인민에게 드리고싶다.》

나는 이 말에 우승의 비결이 다 담겨있다고 본다.

우리 체육선수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체육인들에게 온갖 육친적사랑을 다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소중히 자리잡고 있다.

올해 아시아 및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체육인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우리 체육인들의 이 일념은 개인의 명예나 돈을 벌기 위해 경기장에 나서는 다른 나라 체육인들의 육체적능력에 비할바 없는 최강의 정신적 힘을 냈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혼성복식은 물론 남, 녀개인경기 등 모든 탁구종목들에서 세계패권을 쥐었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 결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제탁구련맹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우승한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5월 30일 김일성경기장에서 기자들과 회견하였다.

여기에는 평양시내 출판 보도부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처음으로 우승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힘있게 떨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에 세계탁구계를 놀래우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애국충정

조국에 도착하여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우리 체육인들처럼 복판은 사람들은 세상상 없다고 강조하였다.

선수들은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림으로써 금메달로 백두산대국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데 적극 기여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30여년전의 환희가 외살아나

며칠전 TV로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우리 나라의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는 모습을 본 나의 심정은 격정적으로 뒤흔었다.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공화국기가 게양되는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는 나도 북받치는 격정으로 함께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장한 조국의 아들 딸들인가.

다른 나라 상공에 공화국기를 휘날리고 애국가를 울린 이들이 바로 진짜 영웅이고 애국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불수록 미더운 우리의 체육인들이다.

문득 1975년과 1977년 제33차, 34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개인단식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

을 안고 우리 식의 경기원칙과 방법을 경기마다에 구현하였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높이 날린 체육인들에게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고계시는데 대하여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본사기자

이 좋고 신바람이 나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절로 코노래가 나온다.

조국에 영광을 안겨주고 인민들에게 크나큰 승리의 심신을 북돋아준 김혁봉, 김정선수들의 성과는 우리모두에게 승리의 심신을 안겨주는 진리를 다시금 깨우쳐주었다.

수도건설위원회 대동강골재 사업소로동자 배운호

내 아들도 유명한 탁구선수로

김혁봉, 김정선수들의 우승소식을 듣고 이런 훌륭한 자식을 낳아키운 어머니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도 이렇게 기쁘게 그렇듯 장한 아들딸들을 낳아 키운 어머니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들의 제일 큰 기쁨은 자식이 잘되는것인데 하물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

예를 떨친 아들딸을 둔 어머니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같은 녀성으로서 훌륭한 자식을 둔 그들이 정말 부럽다.

체육열풍이 세차게 불고있는 요즘 이들의 경기성과가 전해지자 탁구선수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부쩍 늘어나고있다.

내가 살고있는 아바트에서도 여러명의 아이들이 학교

탁구소조에 새로 들어갔다고 한다.

김혁봉, 김정선수들의 경기성과는 요즘 불고있는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북돋아주고있다.

그들이 6살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하였다는데 나도 우리 아들(7살)을 탁구를 시켜서 유명한 탁구선수가 되도록 하겠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서흥동 8인민반 전선희

룡라인민체육공원과 평양국제축구학교 준공식 진행

풍치수려한 룡라도에 룡라인민체육공원과 평양국제축구학교가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었다.

20만여㎡의 부지면적을 가진 종합적인 체육복합시설인 룡라인민체육공원에

축구장, 룡구장, 배구장,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각종 대중체육시설들이 꾸려

져있으며 이곳을 찾는 인민들이 문화휴식의 한때를 즐길수 있도록 소공원과 식

당, 청량음료점들도 갖추어져있다.

평양국제축구학교는 교사

와 기숙사는 물론 문화휴식 시설까지 현대적으로 꾸려져 축구에 재능있는 학생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생활

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어있는 축구선수후비양성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건설된 룡라인민체육공원과 평양

국제축구학교 준공식이 5월 30일에 진행되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준공식이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



룡라인민체육공원(←)과 평양국제축구학교(↑)



평안강에 보트 놀이가 한창이다.

평양산원이 너성들과 어린 이들의 요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건축물의 웅장함에도 있지만 독특한 보석 모자이크형식이 창안되어 훌륭히 시공된 데 있다.

평양산원의 현관홀보석바닥모자이크는 세계의 수많은 참관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류가 오랜 기간에 걸쳐 모색하여오던 바닥모자이크형식의 모범으로 된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생활과 인연이 깊은 동백꽃, 도라지꽃, 복숭아꽃 등을 벽옥, 흑요석을 비롯한 여러종의 보석들로 형성한 바닥모자이크는 그 천연보석의 아름다운 색깔과 특이한 광택, 무늬형상의 높은 조형성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일체식바닥모자이크 방식에 의한 꽃무늬형상의 은근한 깊이와 생동성, 립체성은 바닥모자이크발전의 수 천년력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특이한 조형효과로 된다.

평양산원에서 시작을 멘 일체식바닥모자이크방식은 창광원과 민수대에올라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의 내부들에 시공된 보석바닥모자이크들에서 더욱 세련되었다.

1970년대말부터 리용되던 공화국의 일체식바닥모자이크방식은 2000년대초에 이르러 다층구조식바닥모자이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다층구조식바닥모자이크 방식은 여러개의 층으로 형성됨으로써 보석의 량을 줄이면서도 예술적표현을 최대한으로 달성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방식이다. 다층구조식바닥모자이크방식에서 기본은 의연히 여러가지 색깔과 광택을 띤 보석이다.

보석의 천연색과 광택을 훌륭히 살리면서 무늬를 형성하는것으로 하여 다층구조식바닥모자이크를 가리켜 공화국의 인민들은 《보석주단》이라고 말하고있다.

오늘 공화국의 보석바닥모자이크는 건축장식미술의 한 부분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보석바닥모자이크

조선의 한은경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으로 선거

얼마전 아시아축구련맹 제 25차 특별총회 및 정기총회 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 룸푸르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은경이 아시아 축구련맹 집행위원으로 선거 되었다.

바레인의 웨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할리파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아시아축구련맹은 아시아

의 축구기술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1954년 5월에 창립 되었다. 련맹의 최고기관은 2년에 한번씩 소집되는 총회이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4명의 부위원장, 재정주임, 9명의 집행위원 그리고 국제축구련맹에서 파견된 3명의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련맹은 4년에 한번씩 아시아축구선수권(아시아컵)을 열기 때문에 존재하며 판교환은 판교환을 둘러싸고 그것을 판교환공급자와 판교환요자가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다.

식품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홍당무우

최근에 홍당무우가 인체 건강에 유익한 식품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학자들은 일련의 질병발생을 예방하자면 매일 홍당무우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홍당무우에는 비라민과 팜물질, 기타 생리활성물질들이 조화롭게 들어있다. 드로비라민 A와 비라민 C, D, E, K, 칼슘, 린 등을 보충하려면 홍당무우를 먹어야 한다.

위와 소화기계통전반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홍당무우는 위기능장애와 궤양성질병, 위염, 설사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할수 있다.

학자들은 홍당무우가 비만과 이물질병, 불면증, 풍팔염, 간질환, 담낭염, 결장염, 위 및 12지장궤양 등의 치료에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있다.

유모아 번대머리가 된것은 슬랏

어떤 사람이 력수염은 수복하고 머리는 번대머리인데 주자에게 물었다.

《한몸에서 어찌서 력에는 력이 나고 머리에에는 력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 슬랏일세.》

《어찌서 슬이 머리에에는 화를 입히면서 력에는 화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입자 슬리한 사람의 앓음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슬리한 사람은 늘 (아이고 머리아, 아이고 머리아.) 하지 (아이고 력이야, 아이고 력이야.) 하는 법이야 없지 않던가. 아픈거야 화를 입은탓 일게고 아프지 않은거야 화를 당하지 않았기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내 력에는 수염이 수복하지만 머리에에는 력 한 오리 남지 않은걸세.》

세계에 알려진 고려종이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종이제조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세나라시기의 종이제조기술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다.

고구려시기의 유적에서는 매우 최고 섬유질이 균일하며 면밀하게 짜여져있는 종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종이표백기술과 섬유를 다듬어질하여 그 질을 균일하게 하는 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고구려는 610년에 중 담징을 일본에 보내어 고급종이 제조기술을 배워주기도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단나무껍질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이를 백추지라고 하였다. 이 백추지는 섬유질이 고르고 회백질이었으므로 일본의 한 력사학자는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종이와도 비교할수 없을만큼 훌륭한 종이로서 중국에서까지도 천하제일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시기의 종이는 글을 쓰고 인쇄하기에 적합하며 질기고 앞뒤가 반질반질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웃나라에서는 고려종이를 제일로 여겨 이것을 구하여 글을 쓰는것이 상류층 사람들의 자랑으로 되었다.

중국에서는 우리 종이 가 질기다고 하여 등피지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 종이는 글을 쓰는 데는 물론 우산과 부채를 만들거나 속옷이나 옷을 대신하는데 리용되었으며 과일이나 과줄 등을 담는 그릇, 바느질그릇을 비롯한 각종 장식함을 만드는 데도 리용되었다.

민족요리 승어매운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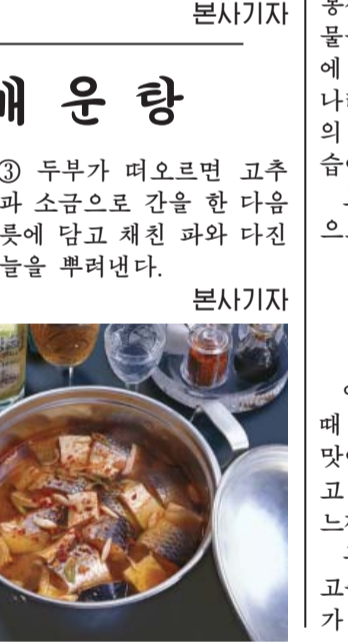
△ 음식감 승어 2kg, 두부 300g, 소금 5g, 고추장 50g, 파 20g, 마늘 10g, 후추가루 1g, 정긴 고추가루 5g

△ 만드는 방법

① 승어는 토막으로 썰어 생김 고추가루, 파, 마늘, 소금, 후추 가루를 두고 재운다.

② 끓는 물에 승어 토막을 넣고 끓이다가 거품을 걷어내고 나박 모양으로 썬 두부를 둔다.

③ 두부가 떠오르면 고추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그릇에 담고 채진 파와 다진 마늘을 뿌려준다.



깊은 인상과 감흥을 주는 전시관

5천년의 력사와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평양에는 공화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즐겨 찾는 평양문화전시관이 있다.

비록 공화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이곳 전시관을 한번 돌아보면 세상에 자랑높은 조선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에 대하여,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향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경제강국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는 공화국의 현실과 비약적인 발전모습을 한눈에 알수 있다.

2층으로 된 평양문화전시관의 드넓은 홀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조국전적작품, 각종 분야의 도서들과 《조선》, 《평양타임스》, 《금수강산》 등 조국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화보, 화첩, 신문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관에 전시되어있는 산 좋고 물 맑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과

민들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미술작품들은 참관자들의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뛰어난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 조신화, 유화, 조각 등 미술작품들은 보는 사람들을 신비한 예술의 경지로 이끌어가고있다.

평양문화전시관을 돌아본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대단히 인상적이며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전시관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소감을 펴 령하고있다.

이곳 전시관을 찾은 남아프리카의 한 인사는 《조선에는 독특하고 우수한 민족 문화유산이 많다. 아름다운 미술작품들과 문화유산들은 조선이 세계문화에 훌륭한 기여를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전시관을 돌아본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도 훌륭한 사진들과 화보, 화첩, 다매체 편집물들을 통하여 조국의 발전모습을 잘 알수 있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우리 선조들의 꽃정서

여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의 화원속에서 삼매경을 널리 퍼워온 우리 민족은 독자적인 꽃문화를 창조하였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시기에 매화를 가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와 조선 봉건왕조시기에는 꽃을 민간에서도 많이 가꾸었다.

어름철이면 우리 녀성들은 봉선화꽃을 짓뎠어 손등에 물을 들였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세나라시기에는 사랑이나 존경의 표시로 꽃을 꺾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고려시기에는 꽃을 판상용으로 병에 꽂거나 장식으로

머리와 모자, 옷 등에 꽂았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꽃이 남녀간의 정을 표시하는데도 쓰였다.

꽃을 사랑하여온 우리 민족은 꽃의 상징적의미를 귀중히 여기었다. 집단이나 9등급으로 나누면서 매화, 국화 등을 1등급으로 평가하였다. 그것은 눈서리를 맞아서도 시들지 않는 국화 등이 우리 민족의 고상한 품위를 상징한다고 여겼기때문이다. 도덕의 리심을 귀중히 여기고 참된 인생을 넘넘해온 우리 민족은 이처럼 독특한 꽃문화를 빛내여왔다.

허성철

양념감의 어울림

여러가지 양념을 같이 쓸 때 그의 어울림에 따라 양념 맛이 약하게 느껴질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더 강하게 느껴질수도 있다.

후추가루를 넣은 음식에 고추가루를 쓰면 맛과 냄새가 잘 어울리지 않을뿐 아니라 후추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추가루를 쓸 때 후추가루를 넉넉히 넣거나 후추가루의 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추가루를 넣지 않는것이 좋다.

식초와 맛내기를 같이 두면 맛내기의 맛이 약해진다.

이때에는 보통때보다 맛내기를 많이 넣어야 한다. 맛내기는 0.9~1% 정도의 소금에 풀었을 때 감칠맛이 제일 잘 난다.

단 양념을 넣을 때 소금을 약간 넣으면 단맛이 더 세게 난다.

깨가루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 난다.

본사기자

자기를 찾은 사람 (4)

글 량홍일, 그림 김윤일

허나 그렇다고 이미 세운 생각을 굽힐 지근우가 아니었다. 일단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그것이 설사 벽이라도 밀고나가는 소갈은 기질을 가진 그였던것이다. 《년 사람의 병은 잘 알아도 장사속은 영 감쪽같이나. 여지껏 파악해온 일을 버리고 다른 일감을 잡는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인줄이나? 도매군을 잘 툐야야지, 그러고 도 손님들의 신용을 얻어야지... 한번 터를 잡는데 보통 2~3년이 걸린단다. 그래, 그세 뭘로 살림을 유지하구 또 내 일을 처리하겠느냐? 나한테 소고기장사가 맞아.》

《하지만 아버지...》

아들은 무엇인가 더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의 고집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지근우는 속으로 놀랐다. 허, 저 녀석도 날 닮아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군. 지금까지 그렇게 제 주장을 세워본적이 없었는데... 《됐다. 사람의 힘에도 한

아들은 얼굴이 굳어지는듯 싶더니 말을 얼버무렸다. 《집에 일이 있다가 하면서 이틀전에 내려갔는데 아직 오지 않은것 같습니나.》

지근우는 그 말을 흘리지 않았다. 아들이 속에 뭘 감추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꼭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속을 찼었다.

아들도 어두운 모습을 더 보이게 되었는데 벽시계를 보고있는 금이가 웃거리에 걸린 양복을 손에 들었다. 《아버지, 친구네 집에 일

아들은 바로 자식들이다. 형편이 좋은 자들은 자식을 이 앞으로 출들 가문을 계속 빛내기를 바라고 집살림이 그리 시원치 못한 집들에서는 당연히 자식대에 신세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지근우도 바로 아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뿐이다.

《알았어요.》

어딘가 모르게 목구멍에 가래가 맺혔을 듯 트인 대답이 아니어서 도무지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이제는 다 자란 아들이다. 하지만 왜 그런지 자주 잔소리가 나간다. 그 어떤 로파심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들이 나가자 그는 방안에 앉아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저녁밥을 먹고싶은 생각이 짝 사라졌다. 눈앞에선 아들의 그늘진 얼굴만이 오락가락한다.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불안이 따리를 틀며 속에서 내려가지 않는다.

무슨 일인가?

어쩔지 미국산 소고기를 팔지 말았으면 하는 아들의 속내도 알수 없고 은경이와의 관계도 석연치 않아 보였다.

